

스포츠 포커스

전남 바이애슬론 대표팀

동계스포츠 불모지서 땀으로 일군 전국 최강



왼쪽부터 배창환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인희 선수, 문지희 선수,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이사, 이봉우 대한바이애슬론연맹전무이사.



조인희

문지희

“
이젠 세계로...
월드컵 대회
30위권 목표
”

눈이 아닌 땅위에서 바이애슬론 대회가 열린다? 동계 스포츠 종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이애슬론(스키 거리경기와 사격이 혼합) 대회가 6월에 열린다고 하면 모두 의아해 할 것이다.

최근 나주 영산포에서 제25회 회장배 전국동계바이애슬론대회가 열려 문지희(20·전남체육회)와 조인희(19·전남체육회)선수가 각각 금, 2, 3위를 획득해 동계스포츠 종목의 불모지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윤혜윤(21·전남체육회)선수는 부상으로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하계 바이애슬론대회는 동계종목과 달리 1km를 달리고 복사(업드러 쉐) 다섯발을 사격한 다음 다시 1km를 달리고, 입사(서셔쉐)로 다섯발을 사격한 다음 다시 1km를 뛰고 끝인하면 되는 경기로 동계 종목 선수들의 경기감각을 살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회로 열리고 있다.

조인희·문지희 선수는 전남이 동계스포츠 불모지임에도 바이애슬론에서는 전국 최강의 전력을 보유했다. 장본인이다. 전북 출신인 이들은 이번 대회뿐 아니라 지난 2008 제89회 동계체전에서 조인희는 계주와 스피린트, 개인경기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문지희도 은메달 4개를 획득해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특히 문지희 선수는 지난 평창에서 열린 월드컵 7차대회에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초로 37위에 올라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한 한국 바이애슬론 대스타이다.

전북 무주중학교와 무주고를 함께 다니며 단짝 친구이

기도 한 이들은 고교 졸업 후 나란히 전남체육회에 입단해 이제 전남사람이 다 됐다.

조인희와 문지희는 “전라북도도 호남이기 때문에 전남이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에서 30위권에 들어 고향과 한국을 빛내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들 두 선수의 선전에는 김상욱 전남 바이애슬론 전무이사(국가대표 코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가 바탕이 됐다.

회장배 하계 바이애슬론대회서

문지희 금 2, 조인희 금 1개 획득

김상욱 코치 헌신적 지도도 한몫

광주 서강중학교시절 육상 중장거리 선수생활을 했던 김 전무는 전남체육고 1학년 때 처음 바이애슬론에 입문, 2년만에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지난 1988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 동계스포츠 불모인 전남출신으로는 강원도 인백으로 형성된 대학팀으로 가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2년간 국가대표 생활을 했다. 또한 군 복무중인 31사단 단기 사병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김 전무는 88년 69회·89년 70회 동계전국체전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고, 1990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 단체전 3

위에 오르는 등 공로가 인정돼 1990년 체육훈장을 받기도 했다.

희련한 현역생활을 했지만 김 전무는 동계운동 불모지인 전남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모든 동계종목은 강원도 출신이 아니면 실업이나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군 제대후에도 실업팀이나 대학에 소속이 결정되지 않아 결국 운동을 접어야 했다.

2002년에는 국가대표를 지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역시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와 전남에 팀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사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무의 바이애슬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인정돼 지난 2005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발탁돼 현재까지 선수들을 지도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전무는 “전남이 동계 스포츠 불모지로 끌어주는 선배가 없어 무소속으로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된 후 곧바로 고향에 팀이 없어 사임했을 때는 운운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지난 2003년 전남근대5종 바이애슬론 연맹이 분리되면서 바이애슬론 전무이사를 맡아 2007년 1월 팀을 창단, 1년만인 제89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3 은4개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 전무의 바람은 정식으로 팀이 창단 돼 전남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김 전무와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꿈인 팀 창단이 가시화 돼 동계스포츠 불모지 전남 팀이 전국에 위상을 떨칠 날을 기대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이사 선수들의 복사 사격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오토오아시스

동구 소재동 지하철 1호선소재역 영진주유소내
정비사수시모집 오일,항균필터교환,배선
외부벨트, 연료필터교환,경정비일체
☎(062)234-1243

아디다스(서방점)

북구 우산동 서방시장 건너
대표 홍 해란
☎(062)528-3039

52번가

서구 품암동 신암교회앞
다향오리전문점
단체손님환영
☎(062)654-5244

엘사랑헤어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옆 2층
컷트,염색등 유행스타일 헤어샵
원장 범수경
☎(062)222-1352

영웅상사

북구 중흥동 한국정보통신연
자동차실내외 인테리어용품
피닉스경보기호남총판
☎(062)369-0787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찜

순천시 금강 조례동 순천 제일병원앞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찜 전문점
대표 김옥주
☎(061)725-6210

김가네(철단산원점)

광산구 월계동 부영@ 114동건너
즉석김밥전문점
도시락 단체주문 포장환영
☎(062)974-0029

삼겹한판

두암동 라인동산@위 옆미트전문앞
생삼겹살,목살,돼지갈비,냉면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64-1190

태평선식(화정점)

화정동 염주사거리 광주은행맞은편
영양식, 환자식, 체질식등
☎(062)371-8998

꽃돼지

서구 쌍촌동 5.18학생회관 맞은편
생삼겹,돼지갈비,제육볶음
돼지찌개,불백전골
☎(062)384-9293

동서남북공인인증개사

서구 품암동 중흥3차 상가 109호
아파트,상가,토지,유휴임대 매매
대표 하운경
☎(062)682-0064

국제광택전문샵

서구 품암동 신암교회는 카센터거리길
광택, 코팅, 부분도색
스팀세차, 실내크리닝전문
☎(062)655-9690

블야성소주방

순천시 조곡동 역전 로얄인미앞
생삼겹,양푼이갈비,제육볶음,아구령,해물탕
대표 엄대성
☎(061)745-2088

마인레스토호프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근처
차, 식사, 주류
☎(062)974-0514

오복식당

두암동 현대2차@후문앞
삼겹살,조기명,생태탕,김치찌개,민장찌개
단체 예약손님환영
☎(062)263-8214

용봉커피숍

용봉동 택지지구 임미빙벽옆 2층
커피 전문점
대표 김정민
☎(062)521-5989

천상태극동자

북구 중흥동 효광초등학교 후문쪽
사주 궁합(영으로 붙입니다)
대표 우옥향
☎(062)432-4226

부안중앙농협특산물판매사업부

서구 치평동 전남고시거리
서창농협컨벤션지점 맞은편
남·여 사원 모집
☎(062)384-6140~1

금호타이어·뱃데리

북구 양산동 신태석시 옆
금호타이어 양산대리점
대표 범희홍
☎(062)571-1277

여수아나고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 월계교회뒤 먹지골목
봉장아구이전문 자연산100%
대표 김영철
☎(062)973-2510

1박2일구이마당

북구 문흥동 홈플러스에서 문흥고기길
항정살,계운오뎅,매운삼겹살,기브리살,갈비기살
대표 신동식
☎(062)527-9292

남광주주유소

주월동 백운로터리에서 구대동고건너
친절한 주유소
대표 송철성
☎(062)671-5145

파티샵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사거리
24시간 상담 출장판매
☎(070)7531-9557

베스트정보

서구 화정동 서평주세무사와 모이@건너 농협옆
SK KTF LG 취급업소
대표 정재환
☎(062)372-0017

싸리골멍석왕갈비

북구 양산동 안다목교회옆
돼지갈비, 생삼겹살, 생막창구이
계장+꽃게탕=6000원
☎(062)571-0977

(주)기양종합상조(광주,전남본부)

북구 중흥1동 현대백화점 건너3층
24시간 행사대기 행사비용의 1/2까지 저렴합니다
본부장 김성균
☎(062)431-8558